

◆ 2006 한우회원농가교육 개최안내

1. 목 적

- 한우의 혈통과 능력에 의한 고급육 생산과 한우사육농가의 소득향상
- 개량의 방향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의욕 재고

2. 기본방침

- 개량교육의 중요성 및 한우개량에 대한 인식재고
- 개량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유도로 농가 경쟁력 재고
- 교육을 통한 가축개량 및 양축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3. 세부추진요령

가) 대상

- 제9,10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협회 한우회원, 전국한우협회 회원

나) 일정

-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12월 8일(금)
- 장 소 : 전북 남원시 산곡동 15-2 (남원 하이츠콘도 Tel 063-626-8080)
- 회 비 : 50,000원중 20,000원은 참여회원 부담

다) 교육내용

일자	횟수	시간	교육내용	강사
12월 7일 (목)	1일차	13:00~13:45	등록 및 비디오 상영	한우개량부
		13:45~14:00	회장인사, 격려사	조병대 회장등
		14:00~14:50	전라북도 한우시책 방향	정홍연 사무관
		15:00~16:30	일본 기후현 화우 개량방향과 방법	나카마루 테루히코
		16:40~18:00	일본 기후현의 효율적인 비육체계	나카마루 테루히코
		18:10~18:40	장수한우산업을 통한 장수발전 전략(성공사례 발표)	성영수 팀장
		18:40~19:00	질의 응답	강사일동
		19:00~21:00	석식 및 리셉션	-
12월 8일 (금)	2일차	08:00~09:00	조 식	-
		09:00~09:50	한우의 번식을 향상방안	손동수 박사
		10:00~10:50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	김윤식 부장
		11:00~12:00	향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 협의	우영목 회장
		12:00~	토론 후 해산	-

※ 본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우판매점인증제 오픈식행사 참석안내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믿고 찾는 한우음식문화를 조성하고, 한우유통투명화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한우만을 고집하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위해 한우농가가 직접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아 인증하는 제도인 한우판매점인증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한우판매점인증제의 첫걸음으로 서울, 대구, 전남 광양 등 3개 음식점에서 인증점 오픈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서는 오픈식에 참석하시어 우리한우가 소비자에게 더욱 믿음직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우판매점인증제사업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오픈식 행사 안내』

● 수도, 중부권 : 서울 마포 화우명가

- 일 시 : 2006. 12. 7 (목) 11:30 ~ 14:00
- 장 소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3-29 전화 02)702-6034

● 영남권 : 대구 한우시대

- 일 시 : 2006. 12. 11 (월) 11:30 ~ 14:00
- 장 소 :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692 전화 053)382-7117

● 호남권 : 전남 광양 매실한우

- 일 시 : 2006. 12. 12 (화) 11:30 ~ 14:00
- 장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9-5 전화 061)762-9178

※ 약도 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2006.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차장 전화(02-525-10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협회장동정



- ▶ 11월 2일:한경대학교 산학협력 협약식
- ▶ 11월 6일:제9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하, 경매(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 ▶ 11월 14일:제4회 이사회
- ▶ 11월 15일: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 (서울 양재동 at센터)
- ▶ 11월 16일:가축개량협의회 공청회
- ▶ 11월 20,21,23,24,27,28일:2006 유우군 검정 농가 순회교육
- ▶ 11월 22일:한미 FTA 저지 100만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 ▶ 11월 24일:한우연구회 심포지움 참석

한경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본회는 유성분의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자료의 신뢰를 높이고 분석장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1월 2일 한경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중앙 유성분 분석소 설치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체결을 가졌다. 본 협약은 산업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

본회는 유성분의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자료의 신뢰를 높이고 분석

하여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 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유성분(지방, 단백질, 무지그형분, 체세포, MUN등)분석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유성분 분석자료를 가공 활용하여 농가들의 컨설팅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중앙 유성분 분석소의 원활한 운영과 젓소 개량사업 및 농가 지도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2006년 제 4회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14일 제 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사업추진현

황 및 직원인사발령과 등록·심사위원 기술교육, 한우농가관리프로그램 개발완료, 해외 선진축산 연수 및 시찰, 2006한우종축생산농가 기술교육, 2006홀스타인품평회, 돼지 유전능력평가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주요부의 안전으로 돼지등록취급요령 개정의 건, 문서규정 개정의 건, 직제규정 개정의 건, 06년 예산 추가경정 승인의 건 등은 승인 통과되었으나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부결되었다.

동조물산

Lely사의 로봇트 착유기 아스트로넛 A3
 런칭 11개월 만에 1,000대 판매



2005년 11월
 23일 Lely사는
 로봇트 착유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Astro-

naut A3 로봇트 착유 시스템(yellow revolution)을 런칭하였다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로봇트 착유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Lely는 대단히 만족함을 보였다. 기계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모두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목장주는 생산력 증대와 더불어, 사용자 친화력을 높인 혁명적인 착유 기술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로봇트 착유기 A3를 런칭한지 1년이 채 안된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0대 이상의 로봇트 착유기 A3가 판매되었다고 공표하였다. 낙농시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최첨단 기술력의 보고인 로봇트 착유기 A3를 환영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전략이 이러한 낙농시장의 성공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가히 도전적인 낙농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목장주들의 충성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로봇트 착유기 A3의 판매 붐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오늘날 낙농시장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짚었다고 말할 수 있다. 로봇트 착유기 A3가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졌으며 또한 그러한 점들이 전세계 목장주들의 시선을 끄는 안정적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목장 산업의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로봇트 착유기에 있어서 최고의 시장 점유를 자랑하는 Lely의 위치는(전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의 로봇트 착유기를 판매) 더욱 더 확고한 위치로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착유 및 급여 부분의 꾸준한 제품 생산을 통해 Lely는 앞으로도 로봇트 착유기 시장의 선두를 놓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앞으로 Lely는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료의 공급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 그리하여 낙농산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최상을 이익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Lely 로봇트 착유기 Astronaut A3 견학왔어요.



11월 9일 Lely사의 일본대리점 직원인 히로키 씨와 일본에서 Lely사의 로봇트 착유기 A2를 9년간 사용하고 있는 요시다 씨, 앞으로 로봇트 착유기 A3를 구입할 예정

인 후지오카씨가 한국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아스트로넷 A3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9년전부터 Lely 로봇트 착유기 아스트로넷 A2을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신모델인 아스트로넷 A3가 국내에 먼저 설치, 가동이 되고 있어 견학을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스트로넷 A3 목장인 또나따목장(대표:양의주)과 서안목장(대표:홍진우)을 견학하고는 Lely 로봇트 착유기 A3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한국낙농에 대한 생각 또한 달라졌다고 말했다.

소의 개량상태나, 시설, 특히, Lely 로봇트 착유기 A3와 같은 최첨단 시스템이 한국에 설치가 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것과 로봇트 착유기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필요한 브리쉬나 송아지 자동급이기등의 모든 옵션들까지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규모 목장이면서 유가공까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원목장을 방문하여 강성원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목장 전체를 견학하고, 바로 가공된 강성원우유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낙농과 아스트로넷 A3의 3박 4일간의 견학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2일 홋카이도로 되돌아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에서는 4000여대 이상의 Lely 로봇트 착유기가 활동중에 있다고 전하고, Lely는 낙농경영에 좀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앞선 새로운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제품만을 공급함으로써 낙농가들이 더

욱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조물산주) 로봇트팀 전화:02)730-8227/8228)

(주) 중앙진테크

미국 ABS 사의 GMS 시스템 도입

(주) 중앙진테크에서는 이번 11월 1일부터 미국 ABS 사의 GMS 젖소 개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동 중이라고 하며, 이는 한국 낙농 특히, 개량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시스템은 낙농가의 젖소 개량 프로그램으로 미국 ABS 본사의 축적된 기술(전체 보유한 종모우 및 딸소 기록은 약 350,000두 수준임)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젖소 개량의 체계화 및 시스템적인 장기적 개량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33개국 및 연간 230만두 젖소가 본 시스템에 의하여 개량되고 있어 우리 낙농가들도 세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선형심사 전문위원 및 GMS 시스템 관리

이사에 김정구 이사 위촉

(주) 중앙진테크에서는 GMS 시스템 구축과 낙농가에 폭넓은 서비스를 위하여 선형심사 및 개량 전문가인 전 (사)한국종축개량 협회 심사 팀장을 역임한 김정구씨를 GMS 관리 이사 겸 선형심사 전문 위원으로 영입하여 활동한다고 밝혔다.

김정구 이사는 종축 개량 협회에서 심사 전문

가로 약 10여년을 활동 하였으며, 미국 홀스타 인협회 심사교육 이수 (1996년), 종개협 심사팀 장, 미국 ABS 개량 전문 프로그램인 GMS스쿨 (2006년)을 이수하는 등 개량 및 선형 심사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정구 이사는 앞으로 GMS 시스템 관리와 목장 선형 심사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 졌다.

자세한 문의는 (주) 중앙진테크 영업부로.

www.jagenetec.co.kr 02)587-1388

2007년 한우자조금 예산 확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2007년 한우 자조금 예산 138억 책정, 올해보다 18% 늘어난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 사또그레이크호텔에서 개최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예산보다 약 21억원이 증가한 138억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우가격이 두당 500만원(암소 기준)을 초과하면서 농가들의 입식량이 급증, 한육우 사육두수가 200만두를 돌파해 도축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안도 올해보다 약 18% 증가한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선호부위 소비촉진행사, 학교급식 관련 지원 사업,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정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소비홍보사업은 2006년보다 약 23억원 증가한 95억7300만원이 책정됐다.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영양학적 차이 연구, 한우 부위별 요리법 및 영양학적 가치 연구 등으로 이뤄진 조사연구사업도 3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했다.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은 21억380만원의 예산으로 초음파 육질진단 경영대회 등을 실시한다.

낙농진흥회,

젖소캐릭터 <포미(ForMe)> 선보여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젖소캐릭터 개발에 착수하여 4개월의 작업 끝에 지난 11.10일 새로운 젖소캐릭터 <포미>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젖소 캐릭터 이름 ‘포미(ForMe)’는 ‘우유는 자신을 위해 마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영문의 와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의 <抱美>를 응용하여 네이밍(Naming)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선보인 <포미> 캐릭터는 개발 당시 3차례 이상 어린이와 주부층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귀엽고 깜찍하면서도 엄마 같이 포근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보인 <포미> 캐릭터는 개발 당시 3차례 이상 어린이와 주부층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귀엽고 깜찍하면서도 엄마 같이 포근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미>의 우유팩 비행기 컷, 우유요리 컷 등 다양한 응용동작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낙농진흥회의 젖소 캐릭터 보급은 소비자들에게 우유와 낙농산업에 대한 호감도를 조성하면서 소비자와 우유가 한 발짝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좋은 홍보수단이 될 것 이라는 평가이다.

낙농체험과 같은 소비자의 목장방문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젓소 캐릭터가 활발하게 보급되어 있으며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팬시용품이 함께 개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낙농체험 시작 3년 만에 연간 1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체험 목장을 다녀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우유, 젓소, 목장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 줄 기념품이 없는 실정에서 새로 탄생한 젓소 캐릭터 <포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미 캐릭터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체험목장 대표들과 협의하여 체험목장 방문객에게 목장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팬시용품을 보급하는 것과 아울러 유관기관에서 ‘포미’ 캐릭터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포미>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ilovemilk 홈페이지와 네이버, 야

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캐릭터 콘텐츠를 보급하여 우유소비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현장심사 결과

12개업소 인증

한우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전국한우협회는 10월 31일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증제에 신청한 총 17개 한우판매점에 대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12개 업소

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판매점을 생산자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둔갑유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외식업자에는 한우 판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수익을 실현하게 하며, 투명

《한우판매점 인증제 인증업소 현황》

지역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	화우명가	(02)702-6034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3-29(하나프라자2층)
경기	황성한우궁	(032)326-009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4-8 일석B/D 2층
경기	다한우	(031)581-9227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49-3
강원	황성축협한우프라자	(033)345-6160	강원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583-5
강원	늘푸름임격정	(033)432-9939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84-4
전남	한우방 정육식당	(061)533-140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21-10
전남	매실한우	(061)762-917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9-5
전남	담양축협한우전문식당	(061)380-556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
전남	향촌회관	(061)652-8242	전남 여수시 미평동 700-20
경북	한우시대	(053)382-7117	대구 북구 산격2동 1692
경남	대가한우촌	(055)645-8484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23-1
경남	이 땅의 한우	(055)743-7997	경남 진주시 인사동 181-25

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한우농가에도 실효가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인증심사는 위원장을 맡은 임경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운영탁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장, 이종문 축산연구소 연구관,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남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7명의 인증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인증을 신청한 17개 업소중 미인증 업소는 5개소로 2개 업소는 한우구매육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원료육 구매관리,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기로 분류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소는 매실한우(전남 광양), 늘푸름임격경(강원 홍천), 한우시대(대구 북구), 화우명가(서울 마포), 향촌회관(전남 여수), 횡성한우궁(경기 부천), 다한우(경기 가평), 횡성축협한우프라자(강원 횡성), 축협한우전문식당(전남 담양), 대가한우촌(경남 통영), 한우방 정육식당(전남 해남), 이땅의 한우(경남 진주) 등 12개 업소이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인증을 받은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활용한 관측물 지원과 인증점 홍보에 주력하며, 오는 12월 7일 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1호점 오픈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인증점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음식점 10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사진콘테스트서 남기석 씨 1등 영예

남기석 씨가 한우사진콘테스트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가 지난 2일 올림푸스 한국 갤러리에서 개최한 한우사진콘테스트 시상식에서 한우 고유의 모습을 잘 묘사한 남기석 씨(작품명 gsnam1)가 1등을 수상했고 2위는 김철중 씨(무제), 3위는 김성훈 씨(작품명 한우횡성)와 정진우 씨(돌진)가 차지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한우의 대중화를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올림푸스한국이 공동 개최했고 사진촬영을 위해 지난 10월 20, 21일 양일간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 횡성가축시장, 횡성한우축제 행사장을 다녀왔다.

한우핵군육종연구회 세미나 개최

한우핵군육종연구회(회장 김상준)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 낙농기술지원센터에서 회원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준 회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회원의 내실을 기한 세미나 개최, 우수농장 방문, 해외연수와 송아지 경매사업을 농장위원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내용은 「한우 번식우 관리요령」에 임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우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구양모씨가 설명을 했다.

인터넷 라이브뉴스 큰 반향



축산업계 최초의 인터넷신문인 라이브뉴스가 11월 11일 서비스를 시작하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브뉴스(www.livesnews.com)는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산 쇠고기의 검역현장이나 HACCP 기준원의 개원식 등을 기사와 함께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현장에 간 것과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브뉴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원가입자수와 1일 방문지수, 동영상 클릭 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버 용량과 회선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브뉴스에는 축산인 등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나도기자 코너와 자유게시판,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의 장인 I타운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다.

한편, 라이브뉴스는 독자가 얻은 정보의 가치만큼을 자율적으로 구독료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여기

에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신청자(유료)에 한해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FTA 저지 국민총궐기 개최



미국 몬타나에서의 5차 협상이 다음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FTA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렬히 울려 퍼지고 있다. 한미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에서의 한미FTA 4차협상 저지투쟁에 이어 지난달 22일 한미FTA 저지 국민총궐기대회를 전국 9개 시·도 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청사 진입을 시도하던 대회 참여 농축산인들과 저지 진압에 나선 경찰간에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와 연행자가 다수 발생하는 와중에도 한미FTA 저지를 통해 농촌을 살리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한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한미FTA 농축수산물비대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거행된 이날 대회에는 8만여명의 농민과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여, 한미FTA 협상 반대입장 표명과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행정자치부의 'FTA 반대단체 지원중단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각 시·도별 궐기대회 참여 농업인 대표들은 도지사 및 시장면담과 입장발표를 요구했으나 경

찰측의 봉쇄와 시·도청 관계자의 무성의한 답변과 언행에 자극을 받고 흥분한 일부 농업인들이 청사진입을 시도, 이 과정에서 격렬한 마찰이 발생했다.

한편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미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항쟁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가 119조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발표는 허황된 내용이 아닐 수 없으며 농업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에 나선 한미FTA를 체결하려거든 먼저 농업포기를 선언하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대책 없이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민 상대로 한 대 사기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비대위는 "도시빈민을 양산하고 한국농업을 말살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한미FTA 협상을 진행한다면 전국적으로 차량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11월29일과 12월6일 3차 범국민대회 등 지속적으로 연쇄적인 대규모 시위와 함께 강력한 생존권 투쟁으로 기필코 한미FTA를 저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농축수산물 관련 단체장들.

호주산 쇠고기 유기농 축산물 인증

지난 5월 수입산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호주산 쇠고기가 할인점 판매를 시작으로 식당창업 등으로 판매영역이 점

차 확대되면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이 수입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인 돌라라유기인증코리아로부터 인증을 받은 참우는 최근 '명품중의 명품 쇠고기'라며 홍보 활동과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기농업협회 등 40여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유기축산이 인증 싹을 틔우기 시작해 이제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가운데 호주산 유기 쇠고기를 우리나라 인증기관으로 들여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며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유기농업을 실현하는 농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하는 이유는 경관문화보전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 농민들의 건강과 소득보전이라면서 이 같은 유기농업의 본질을 뒤로한 채 값싼 유기 쇠고기 수입에 정부가 나서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아울러 "유기축산의 기반은 일반 한우의 기반보다도 열악하며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친환경 유기축산업이 수입쇠고기에 짓밟혀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경종을 비롯한 유기농업 전체의 발전은 없다"면서 정부는 확실한 유기축산 발전정책을 인증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한 수입축산물 인증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하제일사료 '한우고급육 연구모임'

천하제일사료(사장 윤하운)의 '한우고급육 연

구모임' 이 한우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우업계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22일 열한번째 '한우고급육 연구모임' 을 갖고,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칭찬과 격려를 위한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태호 정읍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천하제일사료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고급육 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해 오면서 브랜드를 추진해 온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4.6%, 1+등급이상 출현율 79.6%, A+B등급이상 출현율이 85%로 1두당 출하시 94만7천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며 앞으로 브랜드육 판매장을 개설하고, 우수브랜드 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한우홍보전시관도 건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곽재근 안성마춤한우 거산농장 대표도 천하제일사료의 '상상이상 고급육 프로그램' 을 적용한 결과 두당 92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렸음을 밝히고,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더라도 조금한 마음으로 홍수출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고급육에 왕도는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에 맞게 실행하면 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하제일사료 이은주 비육우PM은 '한육우 동향 및 전망' 을 통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한우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한편 사육두수 증가와 전업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주 PM은 소비시장도 생산이러려져 시행과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앞두고 양성화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또 이 PM은 사육두수가 내년 말에는 2

백5만두를 기록하고, 암소비육 증가 및 거세우 출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송아지 시세는 약보합세를 형성하되 송아지 자질별 가격차등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천하제일사료는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진성농장 김성희 사장과 한창목장 김인필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데 이어 정태호 정읍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곽재근 안성마춤한우의 거산농장 사장에게도 고급육생산에 앞장서온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천하제일사료는 '상상이상 출하경진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3개월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하제일사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진화 방역 '훈신'

전북 익산의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농림부는 23일 오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협 등 관계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우선 의사 환축의 양성 확진에 대비,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살처분 및 이동제한 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2004년에 마련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과 '긴급행동지침(SOP)' 에 의거,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농가 지원책

도 강구 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도 조류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예방백신을 확보한 데 이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인체감염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철새를 비롯해 오리·거위·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하지만 닭은 감염되면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폐사한다.

한우농가 해외연수 실시 생산이력제 선진지 견학... 해외 축산에 대한 견문 넓혀



농림부와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한 한우농가 유럽 해외연수가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19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국의 각 도별로 추천 받은 24명의 한우농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유럽 해외연수는 생산이력제 선진지 견학을 주제로 하여 프랑스 샤흐트르 지방의 생산이력제를 담당하는 샤흐트르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여 생산이력제 실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력제 참여농가를 방문했다.

유럽 해외연수는 생산이력제 선진지 견학을 주제로 하여 프랑스 샤흐트르 지방의 생산이력제를 담당하는 샤흐트르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여 생산이력제 실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력제 참여농가를 방문했다.

또한, 방문기간 중 개최된 독일 하노버 국제 축산박람회에 참석하여 축산관련 최신 기자제와 약품·설비를 살펴보는 한편, 2007년 전국한우협회가 추진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농림부와 전국한우협회가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연수는 유럽과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본의 생산이력제 탐방에도 49농가가 11월25일부터 5박6일간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 및 업무 안내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협회가 정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판매점을 찾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한우를 먹을 수 있고, 인증점은 한우전문판매점이라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입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최근 KBS 취재 4321 보도 및 주요 일간지, 전문지 등 매스컴 보도에 따라 인증제 신청에 대하여 문의 전화가 많아 첨부자료에 인증제 사업개요, 인증지침, 인증제 신청서, 인증제 종합평가내용, 식육거래내역서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차장 전화(02-525-10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소비자에 대한 한우농가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파일(한우판매점인증제 자료.zip)은 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2006.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홀스타인 순종 교잡종에 비해 생산성 우수

홀스타인 젖소 순종이 유량, 유지방, 유단백 생산성에서 다른 교잡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7개 목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실험에는 홀스타인 순종과 노르만디종, 스칸디나비아 레드종, 몬트벨라드종과 각각 교잡한 3개 교잡종이 비교되었는데 홀스타인종 380두의 평균 생산량은 유량 9,736kg, 유지량 345kg, 유단백량 304kg인데 비해 스칸디나비아 레드종과의 교잡종 328두의 성적은 9,261kg, 339kg, 296kg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르만디종과 교잡종의 생산성이 가장 낮아 245두 평균생산성이 유량, 유지방, 유단백량이 각각 8,512kg, 318kg, 276kg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르웨이,

발굽질환이 번식과 대사성 질환에 직접 연관

거의 모든 형태의 발굽질환이 젖소의 번식성과 대사성 질환에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노르웨이 수의과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진은 노르웨이 112개 목장 2천 665두의 젖소들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굽 이상 질환과 함께 임상적 유방염, 유두손상, 유열, 분만간격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발굽에 상처나 종창이 있는 젖소들은 유방염이나 유두손

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발뒷굽치 부식 손상이 있는 젖소들은 번식간격이 길었고, 발바닥에 울혈이 있는 경우는 유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인터볼,

젖소 증모우 유전능력 평가 년 3회 발표 결정

국제적인 젖소 유전능력평가 기관인 인터볼(Interbull)에서 현재 1년에 4차례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젖소증모우 유전능력을 년3회로 평가 회수를 줄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07년도에는 11월 평가가 없어지며, '08년도부터는 매년 1월11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4월 첫 번째 화요일, 8월 세번째 화요일에 각각 세계 젖소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의 증모우 유전능력 평가도 인터볼의 결정에 따라 발표회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종축연합회(NAAB), 젖소품종협회, 유우군검정기관들로 구성된 미국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결정을 곧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유전자 검사로 최고 유질생산우 선발

호주 시드니 대학과 낙농협동조합연구소는 젖소의 유질과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특정 질환에 대한 항병성도 추적할 수 있어 전반적인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현재 6년이 소요되며 두당 비용이 2만5천불에 달하는 젖소 증모우 후대검정방법을 대체할 수 있어 개량사업

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유전적 개량이 생산성 향상에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검사법 이용시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어려서 집중적으로 선발 개량시 연간 90억달러에 달하는 호주 축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50개 협동조합이 전체 원유 판매량 80% 취급

'05년 기준 미국내 상위 50개 협동조합이 판매한 원유량은 1천4백20억 파운드(6천440만톤)로 전체 우유공급량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물량은 '04년에 비해 1.69%가 증가한 것으로 '05년 미국내 전체 우유생산량은 3.8%가 증가하였다. 한편 '05년 기준 미국내 최대 협동조합은 미조리 주에 위치한 '데어리 파머 오브 아메리카' 사로 납유 조합원수는 1만2천78명에 연간 3백67억파운드(1천664만톤)의 우유를 공급하였으며, 뉴멕시코주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호당 연간 납유량이 6천6백2십만파운드(3만톤)로 조합원당 납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새로운 우유살균법으로 우유 45일 보존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연구진들이 새로운 살균법으로 우유 풍미를 손상하지 않고 우유 보존기간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고압의 유체정역학법으로 알

려진 이 방법은 우유를 태운 맛이 나는 기존의 초고온 살균법 대신에 저온에서 5분간 고압으로 우유내 유해균을 파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살균처리시 유해균은 사멸되지만 이취를 생성하는 화학물질 생성이 최소화 되어 풍미가 좋으며 냉장 보관시 저장기간을 45일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60초내 유성분 분석장비 개발 시판

영국의 한 분석기기 회사가 각종 우유성분을 60초내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유질 관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영국 랭캐스터에 위치한 밀크랩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초음파 분광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도 기존제품의 10분의 1가격인 2천파운드(35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장비는 최근 유럽연합이 영국 낙농업계에 엄격한 우유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유업체나 낙농가들이 유질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발 업체는 기대하고 있다. 유성분 검사과정에서 위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체 클리닝 장치를 갖춘 이 장비는 현재 30초에 유성분을 분석하는 모델과 집유차량이나 착유기에 직접 부착할수 있는 모델을 내년 7월에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농수산성 금년도 발효유 소비 호조 발표

일본의 금년 4월에서 9월까지의 발효유 소비

가 전년 동기대비 5%를 웃도는 44만 킬로리터에 달해 판매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농림수산성이 발표하였다.

특히 프레임 타입과 특정 유산균을 사용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대 유업체중 하나인 메이지 유업은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536억엔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유업체인 밀크 커뮤니티(메가 밀크)도 유산균을 장까지 보내는 제품을 선보여 부진했던 다른 제품의 매출을 만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즈바 유업의 원유 100%사용 감미하지 않은 발효유 제품은 전년대비 10%의 매출성장으로 연속 판매신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내에서는 우유소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어 각 유업체들은 요구르트를 핵심사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식욕 억제하는 우유 유럽서 첫선

和 캄피나社 밀크 드링크 ‘옵티멜 컨트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유제품업체로 알려진 캄피나社(Campina)가 식욕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밀크 드링크 신제품을 선보여 관심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옵티멜 컨트롤’ (Optimel control)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된 이 제품은 11월 27일을 ‘D-데이’로 네덜란드 전역의 슈퍼마켓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도 DSM 푸드 스페셜티社와의 제휴로 공급이 착수됐다.

‘옵티멜 컨트롤’은 102ml 용량의 4개 팩으로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무딸기(raspberry)와 레몬 향 등을 머금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캄피나측이 특허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식물 추출물의 작용에 힘입어 식사량을 최소한 10% 정도까지 감소시켜 체중을 유지토록 하는 기전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식욕억제 및 포만감 유지효과는 또 제품을 섭취한 후 수 시간 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얼스터대학에서 진행된 4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량을 12.5~29%까지 감소시켰고, 효과 지속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점심식사 무렵 ‘옵티멜 컨트롤’을 마시면 하루 중 칼로리 섭취량이 가장 많은 저녁식사 때에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 캄피나측의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옵티멜 컨트롤’에는 귀리와 야자 오일 등이 특허를 취득한 비법으로 복합되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블리스’(Fabulless)로 알려진 이 복합성분의 작용으로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소장(小腸) 내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회장(回腸)에 도달하면 포만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뇌 내부로 전달된다는 것. 이와 관련, 캄피나측은 25~50세 사이의 네덜란드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건강한 체중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전체 응답자의 89%가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시장조사기관 테일러 넬슨 소프레즈社(TNS)의 한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캄피나측은 “칼로리 섭취 억제와 충분한 운동 등의 행동요법을 병행할 경우 ‘옵티멜 컨트롤’의 섭취를 통해 점진적인 체중감소에 상당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